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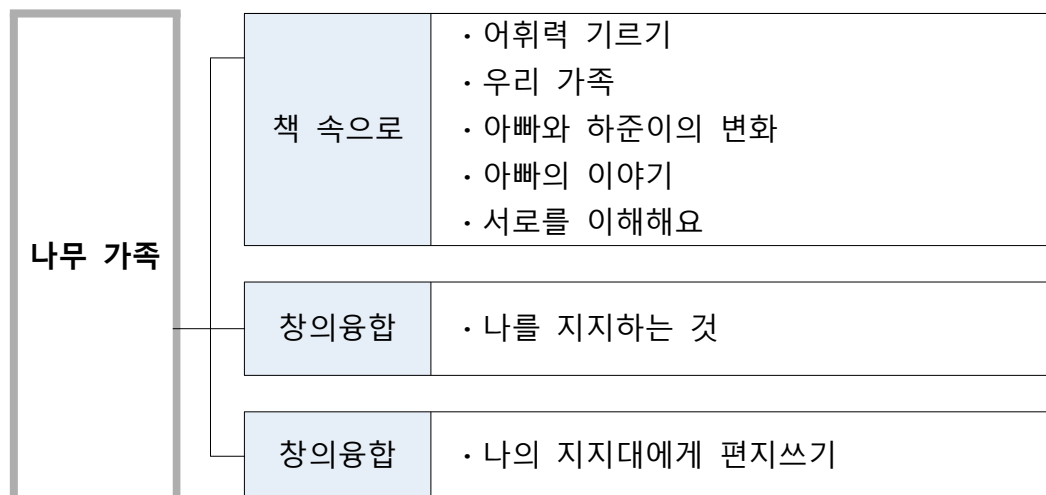
나무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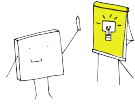
- * 글 : 임지형
- * 그림 : 시은경
- * 펴낸곳 : 단비어린이
- * 정가 : 12,000원
- * 분량 : 100쪽
- * 대상 : 초등학생

· 책 소개

하준이 아빠는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을 잃었어요. 시력을 잃기 전에는 항상 일하느라 바빠서 하준이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 본 적도 없었지요. 시력을 잃은 뒤에는 하루빨리 잘살기 위해 회사 일에 매달려 가족과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지만, 좀처럼 하준이와 가까워지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준이네는 가족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 여행을 간 날 엄청난 천둥 번개와 함께 폭우가 내리고, 그날 하준이는 아빠의 품 안이 얼마나 따스한지 알게 되지요. 또, 폭우에 큰 나무도 맥없이 쓰러졌지만, 지지대가 있었던 어린 나무들이 끄떡없는 모습을 보며, 하준이는 아주 중요한 걸 깨닫게 되어요. 폭풍우에도 꺾기지 버틴 어린 나무들처럼 하준이도 자신에게 그 어떤 삶의 폭풍우가 몰아쳐도 버티 낼 자신이 생겼거든요. 하준이가 어린 나무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 주요 독후활동





독서 전

책 미리 보기 : 표지

-책의 앞뒤 표지의 제목, 글귀, 그림을 살펴봅시다.

1. 『나무 가족』의 책표지를 보고 드는 생각과 느낌, 궁금한 점 등을 써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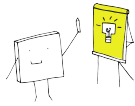
| |
|--|
| |
| |
| |

2. 『나무 가족』 뒤표지에 쓰여 있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우리 가족은 서로가 서로를 받쳐 주는 든든한 지지대예요!

무시무시한 폭풍우가 몰려와도
지지대가 있으면 어린 나무도 끄떡없어요.
사람도 나무처럼 지지대가 있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 곳곳이 버텨 낼 수 있죠.
하준이는 이제 자신이 아빠처럼
눈이 안 보이는 순간이 온다 해도 두렵지 않아요.
엄마 아빠라는 지지대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신이 아빠의
든든한 지지대이기 때문이죠.

- 1) 무시무시한 폭풍우가 몰려와도 왜 어린 나무는 끄떡없이 서 있을 수 있었나요?
- 2) 하준이의 든든한 지지대는 누구인가요?
- 3) 하준이는 누구의 지지대가 되어 준다고 했나요?



독서 중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인상 깊은 부분을 찾으며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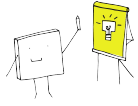
-재미있는 표현이나 기억에 남는 글귀를 생각하며 읽어요.

※ 『나무 가족』을 읽으면서 인상 깊은 부분을 적어봅시다.

| 읽은 날짜 | 읽은 쪽 | 인상 깊은 부분 |
|-------|------|---|
| ○월 ○일 | 12쪽 | 시각 장애인이 소리를 내서 방향이나 물건의 위치를 알아낸다는 게 인상 깊었다. 앞으로 이런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도 했다. |
| | | |
| | | |
| | | |

2. 책에 나오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페이지가 있으면 어떨까요? 등장하는 사람의 소개 페이지를 만들어 보세요.

| | | |
|-----|---|--|
| 아빠 | → | |
| 엄마 | → | |
| 하준이 | → | |



독서 후 책 속으로_ ① 어휘력 기르기

* 『나무 가족』에서 발췌한 다음 문장들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그나저나 이 집 ㉠지간이 엄청 사이좋네?”

(나) “아무래도 ㉡때문에 쓰러지지 않은 것 같은데.”

(다) 아빠가 ‘딱’ 소리를 낼 때마다 어둠 속에서 ㉢이 반짝하고 켜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라) “따로 원인이 없고 거의 ㉣요전입니다. 유전이라는 건 그저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1. ㉠, ㉡, ㉢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 아버지와 아들을 아울러 이르는 말 :

㉡ 나무나 물건 따위가 휘거나 꺾이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받쳐 주는 대 :

㉢ 쳐서 불을 일으키는 데 쓰는 돌 :

2. (라)에서 유전의 뜻을 알기 위해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다음 중 ㉣요전에 맞는 뜻은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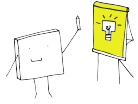
① 아버지의 성격, 체질, 형상 따위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해짐

② 석유가 나는 곳

③ 돈이 있음

3. 책에 나온 시각 장애인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단어의 뜻이 무엇일지 생각해서 답을 적어 보세요.

| | |
|--------|--|
| 시각 장애인 | |
| 반향 정위 | |



독서 후 책 속으로_ ② 우리 가족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그럼 사진 붙일 자리에 그림을 그려 넣어도 좋아요. 가족 신문 만드는 취지는 가족 간의 소통을 위함이니깐요. 엄마랑 아빠랑 함께 만들면 더 좋겠죠?”

선생님의 말씀에 아이들은 더는 묻지 않았다. 어떤 아이들은 고개까지 끄덕였다. 모두가 걱정 없어 보였다. 나만 달랐다. 나만 그때부터 걱정이 머릿속에 가득 움트기 시작해 수업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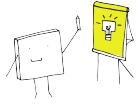
(나) 우선 가족 소개란에 아빠와 엄마 이름을 썼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나이라든가 직업을 쓰려고 하는데 막혔다. 아빠 직업을 뭐라고 해야 할지 난감했다. 지금 아빠는 시각 장애인이 다니는 직업학교에 다니고 있다.

(다) 아빠가 선글라스를 끼고 내 쪽을 봤다. 그때 언젠가 길에서 만난 아빠를 보고 승찬이가 붙여 준 별명이 떠올랐다.

“야야, 너희 아빠 배트맨 같아. 저 선글라스 쓰고 있으니까.”

처음엔 내가 좋아하는 슈퍼히어로라 기분이 안 나봤는데, 생각할수록 기분이 나빴다. 하지만 승찬이 말이 맞는 것 같다. 아빠는 진짜 배트맨이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어두운 곳에서도 잘 지내니까.

1. (가)에서 하준이는 왜 가족 신문 만드는 숙제를 받고, 걱정을 했나요?
2. (다)에서 하준이는 아빠가 배트맨을 닮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나빴을까요?
3. 한 가족이라고 모든 게 다 마음에 들고, 좋을 수는 없어요. 나도 가족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부끄러웠던 적이 있나요? 아래에 써 보거나, 혼자 생각해 보세요.



독서 후 책 속으로_ ② 아빠와 하준이의 변화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내 아들, 내 아들, 잘생긴 내 아들.”

아빠 주문을 외듯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너무 어색하고 쑥스러워 몸이 비비 꼬아졌다.

“으악! 아빠, 나 늦었어요.”

나는 얼른 아빠의 팔에서 빠져나와 내 방으로 갔다.

“후유!”

한숨이 절로 나왔다. 도대체 아빠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어렸을 때만 해도 내게 무뚝뚝했던 아빠가 부쩍 내게 이상한 말을 한다. 오늘처럼 잘생겼다고 하질 않나, 소중하다고 하질 않나. 여하튼 그러는 아빠가 낯설다.

(나) “네. 우리 하준이가 아빠 일을 많이 도와주네요.”

“부럽네요, 진짜.”

앞집 아줌마가 나를 착한 아이라고 말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아빠를 돕고, 말도 잘 듣는다며. 하지만 난 그렇게 착하지 않다. 아빠한테 불만도 많고, 원망도 있다. 게다가 가끔 아빠를 도와줘야 할 때 상당히 귀찮고 싫기도 하다. 그런데도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건 엄마의 부탁 때문이다.

(다) “아휴, 너 정말 착하구나.”

학습지 직원은 활짝 웃는 얼굴로 나를 쳐다봤다.

탁!

난 받으려던 비닐 봉투를 확 쳐 버렸다. 그리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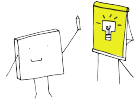
“나 안 착하거든요!”

1. 아빠는 시력을 잃기 전과 후에 어떻게 달라졌나요?

| 시각 장애인이 되기 전 | 시각 장애인이 된 후 |
|--------------|-------------|
| | |

2. (다)에서 하준이가 학습지 직원에게 화를 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3.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진짜 나의 모습이 다를 때가 있나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독서 후 책 속으로_ ③ 아빠의 이야기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요란한 천둥소리와 함께 번쩍 번개가 쳤다. 나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주변은 온통 캄캄했다. 한밤중이 되었나 보다. 그런데 사방 어디에도 불빛이 안 보였다. 아무래도 정전이 된 것 같았다. 왈칵, 무섭증이 났다. 머리끝이 쭈뼛 서면서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 듯 서늘해졌다.

(중략)

그러다 아빠가 떠올랐다. 매일 어둠 속에서 지내야 하는 아빠를 떠올리니 기분이 이상했다. 어쩌면 아빠 우리와 함께 살면서도 늘 혼자 있는 기분으로 사는 건 아니었을까? 그 생각을 하니 가끔 쓸쓸한 표정으로 멍하니 앉아 있던 아빠가 이제 이해가 됐다. 아빠의 외로움이 새삼 마음으로 스며들었다.

(나) “아빠는…… 음, 네가 커 나가는 걸 제대로 못 본 게 가장 마음이 아파. 아까도 말했다시피 일하느라 엄마가 어렵히 알아서 키우려니 생각하고 그저 일만 했거든. 그런데 어느 날 돌아보니 보고 싶어도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사실만 남았더라. 그게 아빠는 제일 후회스러워. 네가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성장하는 걸 제대로 못 본 것 말이야.”

“…….”

뭐라고 말을 하고 싶는데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한마디라도 해서 아빠를 위로해 주고 싶었는데 되지 않았다. 한동안 아빠와 나 사이로 어색한 침묵이 맴돌았다.

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아빠 앞으로 갔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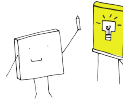
“그래, 그래. 우리 하준이. 그러면 되겠다.”

1. (가)에서 하준이는 어떻게 아빠를 이해하게 되었나요?

2. (나)에서 아빠는 무엇을 가장 후회하고 있나요?

3. 앞으로 하준이가 자라나는 걸 어떻게 아빠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하준이가 되어

에 들어갈 말을 적어 보세요.



독서 후 책 속으로_ ④ 서로를 이해해요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천둥 번개가 한차례 집 안을 흔들었다.

“딱!”

“아빠 가니까 거기에 있어.”

“아빠 여기 이층이니까 제가 내려갈게요.”

난 아까보다 조금 더 익숙해진 어둠 속에서 계단 손잡이를 잡고 한발을 뗐다.

“딱!”

“조심해서 내려와.”

“딱!”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나는 아빠의 반향 정위에 맞춰 한 걸음 한 걸음 아빠에게로 향했다.

“무서웠지?”

아빠의 메마른 목소리가 갈라졌다.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다.

“아빠!”

나는 아빠 품으로 들어갔다.

(나) 지지대가 마치 양쪽에서 잡아 주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아빠 말대로 어젯밤 그 무시무시한 폭풍에도 끄떡없었던 건 저 지지대 때문인 게 맞았다. 쓰러질 것 같은 사람도 양쪽에서 붙잡아 주면 쓰러지지 않듯, 나무도 지지해 주니 버텨 낸 거였다. 난 조금 전 봤던 쓰러진 큰 나무와 지지대가 받쳐진 나무를 한참 동안 번갈아 쳐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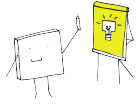
(중략)

“아빠, 내가 지지대 할게요.”

1. 천둥 번개가 치는 날, 하준이가 무섭지 않게 저녁을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2. 폭풍우가 쳐도 작은 나무들이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3. 하준이는 아빠에게 지지대가 되어 주겠다고 말합니다. 나는 누구의 지지대가 되어 줄 수 있을까요? 내가 지지대가 되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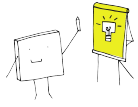
독서 후 창의융합_ ① 나를 지지하는 것

※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있지요. 나를 지지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나를 지지해 주는 것들을 적고, 어떻게 지지해 주는지도 적어 보세요.

내가 가장 먼저 나를
이해하고 지지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늘
스스로에게 잘했다고
말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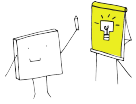
예) 나

나



독서 후 창의융합_ ② 나의 지지대에게 편지쓰기

※ 나에게는 어떤 지지대가 있나요? 나의 지지대를 그림으로 그리고, 편지를 써 보세요.



정답과 해설(예시 답안)

| 2쪽 | <p>1. 예) 아이가 아빠에게 안겨 있고, 아빠와 엄마가 손을 잡고 있어서 다정한 가족인 것 같다. 예) 왜 나무 가족일까? 나무가 이야기에 나오나? 예) 아빠의 눈은 왜 흰 색으로 칠해져 있을까?</p> <p>2.</p> <p>1) 지지대가 있어서 넘어지지 않았다. 2) 가족(엄마, 아빠) 3) 아빠</p> | | | | | | | | | | | | | | | | | | | | | | | | |
|-------|--|--|------|----------|-------|-----|---|-------|-----|---|-------|-----|--|-------|-----|--|----|---|---|----|---|---|-----|---|--|
| 3쪽 | <p>1.</p> <table><tr><th>읽은 날짜</th><th>읽은 쪽</th><th>인상 깊은 부분</th></tr><tr><td>○월 ○일</td><td>12쪽</td><td>시각 장애인이 소리를 내서 방향이나 물건의 위치를 알아낸다는 게 인상 깊었다. 앞으로 이런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도 했다.</td></tr><tr><td>○월 ○일</td><td>25쪽</td><td>다정해 보이는 하준이 아빠가 옛날에는 무뚝뚝했다는 게 인상 깊었다. 왜 갑자기 변했을까도 궁금했다.</td></tr><tr><td>○월 ○일</td><td>46쪽</td><td>하준이도 아빠처럼 시각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깜짝 놀랐다. 하준이는 얼마나 속상하고 슬펐을까.</td></tr><tr><td>○월 ○일</td><td>74쪽</td><td>어둠 속에서 하준이가 아빠 생각을 하는 게 인상 깊었다. 언제나 밤처럼 세상이 새카맣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td></tr></table> <p>2.</p> <table><tr><td>아빠</td><td>→</td><td>⇒ 예시 답안) 하준이의 아빠예요. 시각 장애인이 되기 전에는 무뚝뚝한 아빠였는데, 눈이 보이지 않게 된 후에 다정한 아빠가 되려고 노력해요.</td></tr><tr><td>엄마</td><td>→</td><td>⇒ 예시 답안) 하준이의 엄마예요. 아빠와 하준이의 눈이 되어 주기 위해 노력해요. 두 사람의 사이가 좋아지길 바라며 여행을 계획하기도 하죠.</td></tr><tr><td>하준이</td><td>→</td><td>⇒ 예시 답안) 아빠가 눈이 안 보이는 게 가끔 화가 나기도 하고, 자기도 눈이 안 보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속상해요. 하지만 가족은 서로를 지지해 주는 존재라는 걸 알고, 다시 힘을 내요.</td></tr></table> | 읽은 날짜 | 읽은 쪽 | 인상 깊은 부분 | ○월 ○일 | 12쪽 | 시각 장애인이 소리를 내서 방향이나 물건의 위치를 알아낸다는 게 인상 깊었다. 앞으로 이런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도 했다. | ○월 ○일 | 25쪽 | 다정해 보이는 하준이 아빠가 옛날에는 무뚝뚝했다는 게 인상 깊었다. 왜 갑자기 변했을까도 궁금했다. | ○월 ○일 | 46쪽 | 하준이도 아빠처럼 시각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깜짝 놀랐다. 하준이는 얼마나 속상하고 슬펐을까. | ○월 ○일 | 74쪽 | 어둠 속에서 하준이가 아빠 생각을 하는 게 인상 깊었다. 언제나 밤처럼 세상이 새카맣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 아빠 | → | ⇒ 예시 답안) 하준이의 아빠예요. 시각 장애인이 되기 전에는 무뚝뚝한 아빠였는데, 눈이 보이지 않게 된 후에 다정한 아빠가 되려고 노력해요. | 엄마 | → | ⇒ 예시 답안) 하준이의 엄마예요. 아빠와 하준이의 눈이 되어 주기 위해 노력해요. 두 사람의 사이가 좋아지길 바라며 여행을 계획하기도 하죠. | 하준이 | → | ⇒ 예시 답안) 아빠가 눈이 안 보이는 게 가끔 화가 나기도 하고, 자기도 눈이 안 보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속상해요. 하지만 가족은 서로를 지지해 주는 존재라는 걸 알고, 다시 힘을 내요. |
| 읽은 날짜 | 읽은 쪽 | 인상 깊은 부분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일 | 12쪽 | 시각 장애인이 소리를 내서 방향이나 물건의 위치를 알아낸다는 게 인상 깊었다. 앞으로 이런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도 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일 | 25쪽 | 다정해 보이는 하준이 아빠가 옛날에는 무뚝뚝했다는 게 인상 깊었다. 왜 갑자기 변했을까도 궁금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일 | 46쪽 | 하준이도 아빠처럼 시각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깜짝 놀랐다. 하준이는 얼마나 속상하고 슬펐을까.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일 | 74쪽 | 어둠 속에서 하준이가 아빠 생각을 하는 게 인상 깊었다. 언제나 밤처럼 세상이 새카맣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빠 | → | ⇒ 예시 답안) 하준이의 아빠예요. 시각 장애인이 되기 전에는 무뚝뚝한 아빠였는데, 눈이 보이지 않게 된 후에 다정한 아빠가 되려고 노력해요. | | | | | | | | | | | | | | | | | | | | | | | |
| 엄마 | → | ⇒ 예시 답안) 하준이의 엄마예요. 아빠와 하준이의 눈이 되어 주기 위해 노력해요. 두 사람의 사이가 좋아지길 바라며 여행을 계획하기도 하죠. | | | | | | | | | | | | | | | | | | | | | | | |
| 하준이 | → | ⇒ 예시 답안) 아빠가 눈이 안 보이는 게 가끔 화가 나기도 하고, 자기도 눈이 안 보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속상해요. 하지만 가족은 서로를 지지해 주는 존재라는 걸 알고, 다시 힘을 내요. | | | | | | | | | | | | | | | | | | | | | | | |
| 4쪽 | <p>1. ㉠ : 부자 ㉡ : 지지대 ㉢ : 부딪들</p> | | | | | | | | | | | | | | | | | | | | | | | | |

| | <p>2. ①</p> <p>3.</p> <table border="1"> <tr> <td>시각 장애인</td><td>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요인으로 시각에 이상이 생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아주 약한 시력만 남아 있어서 앞을 보기 어려운 사람.</td></tr> <tr> <td>반향 정위</td><td>동물이 소리나 초음파를 내어서 그 돌아오는 메아리 소리에 의하여 상대와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td></tr> </table> | 시각 장애인 |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요인으로 시각에 이상이 생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아주 약한 시력만 남아 있어서 앞을 보기 어려운 사람. | 반향 정위 | 동물이 소리나 초음파를 내어서 그 돌아오는 메아리 소리에 의하여 상대와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 |
|--------------------|---|---------------|---|--------------------|--|
| 시각 장애인 |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요인으로 시각에 이상이 생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아주 약한 시력만 남아 있어서 앞을 보기 어려운 사람. | | | | |
| 반향 정위 | 동물이 소리나 초음파를 내어서 그 돌아오는 메아리 소리에 의하여 상대와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 | | | | |
| 5쪽 | <p>1. 시각 장애인인 아빠와 아빠의 직업을 소개하려니까 걱정이 되었다.</p> <p>2. 예시 답안) 시각 장애인인 아빠를 놀리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다.</p> <p>3. 답안 생략</p> | | | | |
| 6쪽 | <p>1.</p> <table border="1"> <tr> <th>시각 장애인이 되기 전</th><th>시각 장애인이 된 후</th></tr> <tr> <td>⇒ 하준이에게 무뚝뚝하게 굴었다.</td><td>⇒ 애정표현을 많이 한다.</td></tr> </table> <p>2. 예시 답안) ‘착하다’는 말이 ‘착해야 한다’로 들렸을 것 같다. 하준이는 불만을 모두 참고, 시각 장애인인 아빠를 위해 착하게만 행동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더 힘들었을 것 같다.</p> <p>3. 예시 답안) 다른 사람들은 나를 밝고 활발한 아이로 아는데, 나는 사실 소심하고 겁도 많다. 그래서 친구들이 늘 발표나 모둠장을 시키는데 부담이 된다.</p> | 시각 장애인이 되기 전 | 시각 장애인이 된 후 | ⇒ 하준이에게 무뚝뚝하게 굴었다. | ⇒ 애정표현을 많이 한다. |
| 시각 장애인이 되기 전 | 시각 장애인이 된 후 | | | | |
| ⇒ 하준이에게 무뚝뚝하게 굴었다. | ⇒ 애정표현을 많이 한다. | | | | |
| 7쪽 | <p>1. 정전이 되어 앞이 보이지 않자, 늘 어둠 속에서 지내는 아빠의 외로운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p> <p>2. 하준이가 자라나는 걸 잘 보고, 기억해두지 못한 걸 아쉬워하고 있다.</p> <p>3. 예시답안) “제가 아빠에게 매일 얼마나 컸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 줄게요. 그럼 제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p> | | | | |
| 8쪽 | <p>1. 아빠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p> <p>2. 지지대가 양쪽에서 잡아 주었기 때문에.</p> <p>3. 예시답안) 학교에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가 있다. 그 친구와 친구가 되어서 지지대가 되어 주고 싶다.</p> | | | | |
| 9쪽 | 가이드: 나를 지지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적고, 어떻게 지지해 주는지 혹은 어떻게 지지해 주면 좋을지를 적도록 해 주세요. | | | | |
| 10쪽 | 가이드: 그림과 글을 쓴 뒤, 자르면 카드로 만들 수 있어요. 카드로 만들 경우, 그림을 거꾸로 그리도록 지도해 주세요. | | | | |